전주미래유산 42선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JEONJU FUTURE
HERITAGE GUIDEBOOK

전주미래유산 42선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JEONJU FUTURE
HERITAGE GUIDEBOOK

Contents

예술의 향기를 담다

1 행원 10
2 남문악기사 11
3 고미술거리 12
4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13
5 양사재 14
6 서학동 예술마을 15

공간·기억에 취하다

7 한성여관 18
8 전주1924(일제강점기 창고) 19
9 전주 최초 고아원 터 20
10 이시계점 21
11 미원탑 터 22
12 홍지서림 23
13 한가네서점 24
14 삼양다방 25
15 선각사 26

올곧음의 길을 떠나다

16 곤지산 초록바위 30
17 보광재 옛길 31
18 한지 제조 기술 32
19 충경사 33

일상의 추억 속으로

20 광명대장간 36
21 성수미점 37
22 통일이용원 38

저잣거리에서 의인을 만나다

23 어은쌍다리 42
24 매곡교와 싸전다리 뚝방길, 이거두리 이야기 43
25 남부시장 44
26 깨배기주단 45
27 모래내 전통시장 46
28 약령시거리 47
29 송용진한의원 48
30 삼천동 막걸리골목 49

도심 속 마을공동체를 찾아서

31 거북바위 52
32 노송동 천사 53
33 전주역 터(전주시청) 54
34 문화촌 공공건축물 55
35 비사벌초사(신석정 가옥) 56
36 행치마을 57
37 장재마을 58

전주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38 호남제일문 62
39 구 검사장 관사 63
40 전주동물원 64
41 전주종합경기장 터 65
42 전주시외버스터미널 66

Jeonju
Future Heritage
Guidebook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JEONJU FUTURE HERITAGE GUIDEBOOK

전주미래유산이란?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한옥마을과 풍남문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외곽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도심은 전주의 살아있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전주미래유산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이야기를 총망라한 유·무형유산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의 생활문화가 녹아있는 장소, 전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전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전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는 전주의 기억이 담겨 있는 미래유산을 여러분에게 소개 하고자 출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미래유산을 함께 추억하고 여행하며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주미래유산
JEONJU FUTURE HERITAGE

전주미래유산 BI는 한옥지붕 아래 전주완판본체(全州完板本體)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전주완판본체는 전주시의 대표 서체로, 조선후기 전주에서 간행되었던 목판 인쇄본(완판본)을 가득 채운 한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서체입니다. 전통문화도시를 대표하는 전주시는 미래유산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전해질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주미래유산 목록

전주의 100년 후 보물을 소개합니다. 전주시는 2017년 38건의 전주미래유산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42건의 미래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미래유산은 전주의 근현대 문화자산이자 전주를 기억할 수 있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한옥마을 외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주의 구도심을 거닐며 전주미래유산을 만나보세요.

42개 목록(2023년 기준)

연번	명칭	주소
1	전주종합경기장 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2	행치마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행치마을
3	노송동 천사	전주시 덕진구 노송동 일원
4	서학동 예술마을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일원
5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9
6	남부시장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일원
7	삼천동 막걸리골목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막걸리골목
8	삼양다방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94
9	미원탑 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기업은행 사거리
10	거북바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186 거북바위
11	장재마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장재마을 일원
12	이시계점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25
13	전주동물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14	비사벌초사(신석정 가옥)	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42-9
15	홍지서림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6
16	곤지산 초록바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13일대
17	전주역 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18	행원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2
19	호남제일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6 일원

연번	명칭	주소
20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4
21	선각사(옛 금융조합)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7
22	충경사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31
23	통일이용원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3
24	송용진한의원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8-25
25	전주1924(일제강점기 창고)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49
26	약령시거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완산교 주변
27	어은쌍다리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
28	고미술거리	전주시 완산구 완산경찰서 일원
29	양사재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길 40
30	깨배기주단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5 남부시장 내
31	한성여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43-3
32	한지 제조 기술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 전주천년한지관
33	남문악기사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3길 27-13
34	한가네서점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2
35	모래내 전통시장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모래내시장
36	성수미점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5-14
37	광명대장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65
38	문화촌 공공건축물	전주시 완산구 문화3길 14-14
39	보광재 옛길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흑석골 ~ 완주군 구이면
41	구 검사장 관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36
42	전주 최초 고아원 터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1길 14-15 주변
43	매곡교와 싸전다리 뚝방길, 이거두리 이야기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매곡교와 싸전다리 일원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전주미래유산 40)은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미래유산 목록에서 제외됨

뚜벅이투어

예술의 향기를 담다

전주미래유산 중 음악, 공예, 전시, 예술인, 문화예술공간 등과 관련된 장소 중심

행원 → 남문악기사 → 고미술거리 →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 양사재 → 서학동 예술마을

전주웨딩거리
전라감영
고미술거리
전주완산
경찰서
남문악기사
행원
풍남문
전주남부시장
경기전
엣 백양메리야스공장
풍남동
전주성심
여자중학교
전주성심
여자고등학교
양사재
전주완산
초등학교
서학동예술마을
전주교육대학교

행원

일제강점기 때 권번으로 사용했던 곳을 남전 허산옥이 인수해서 요정(料亭)으로 운영하였다. 남전은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1949~1981)에서도 여러 차례 입선하는 등 당대 유명 화가로 명성이 있었으며, 지역의 어려운 예술가들을 도와주는 숨은 후견인의 역할도 했다. 그가 운영하던 행원에는 장안에서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6·25전쟁 당시 전주로 피난을 와 있던 박초월, 김소희, 김연수, 임방울 등도 남전의 후원을 받던 사람들이다. 이후 1983년 무렵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성준숙이 인수하여 한정식집으로 사용하였다가 현재는 한옥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살구꽃 만발한 동산 행원에서 향기를 잃지 않고 산 남전의 이야기는 예향에서 만날 수 있는 미담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2 (전동)

가는 방법　전동성당·한옥마을 정류장 ▸ 도보1분

남문악기사

남문악기사는 전주에서 제일 오래된 악기사이며 3대째 운영되는 곳이다. 처음에는 현재 주인의 조부가 축음기 수리가게로 시작했고, 1962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번화가 중심에 있는 남문악기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전주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음악애호가들은 이곳에 들러 카세트테이프, 레코드판, 통기타 등을 사면서 음악 관련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새로운 음반이 나올 때마다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야 했던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로, 전주시의 대중 음악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27-13 (중앙동4가 54-1)

가는 방법 완산경찰서 정류장 ▸ 도보3분

고미술거리

고미술거리는 표구 거리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화랑과 고미술 관련 표구사, 장황연구원, 골동품 상점 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1960년대는 표구사들이 현재보다 훨씬 많았으나, 서양식 표구가 들어오고 병풍제작이 줄어들면서 상점 수가 크게 감소했다. 한때는 이곳 전문가들의 솜씨로 문화재 보존처리와 복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몇몇 표구사가 그 맥을 간신히 잇고 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배첩장 변경환 보유자가 맥을 잇고 있으며, 그의 산방에는 스승인 서재영 장인이 물려준 솔, 붓 등 각종 공구들이 그대로 남아 전주 표구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완산경찰서 일원
가는 방법 완산경찰서 정류장 ▸ 도보2분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교동미술관은 1960년대에 건축되어 1980년까지 백양메리야스(BYC)를 생산하던 편직공장이었다. 이후 편직공장이 전주시 팔복동으로 이전되고, 사단법인 교동아트가 공장 부지와 건물을 문화시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교동미술관의 명칭은 이곳이 한옥마을의 교동(校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통의 통로인 '움직이는 다리'가 되고자 했던 설립자의 뜻을 담아 교동(橋動)이라 지었다고 한다. 이곳은 추억의 메리야스, 내복을 떠올릴 수 있는 섬유산업의 공간인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였다. 전주 여성들의 섬세한 손기술로 지역의 경제를 일으켰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이곳의 여성 노동자의 손기술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쳐주었다고 한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9 (풍남동3가 67-9)
가는 방법　전동성당·한옥마을 정류장 ▸ 도보7분

양사재

양사재는 향교의 부속 건물로, 서당교육을 마친 유생들이 기숙하면서 생원, 진사 시험을 준비하던 곳이었다. 이곳을 거쳐 간 유학자들이 적지 않다. 1951년부터 약 6년 동안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이곳에 거주하며 집필과 후학 양성을 하였다. 양사재는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기까지도 교육공간의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1970년 이후에는 이러한 역사가 잊힌 채 일반 가옥으로 사용되었다. 2002년 무관심 속에서 묻혀 있던 양사재가 뜻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양사재 운영팀은 100여 년 전의 원형을 복원하여 한옥 민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차를 보급하는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길 40 (교동 58)

가는 방법　전동성당·한옥마을 정류장 ▸ 도보10분

서학동 예술마을

서학동은 한 때 주거지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될 즈음에도 전주천을 사이에 둔 서학동은 1970·80년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 화가, 사진작가, 자수·공예가 등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었다. 현재 50여 명의 예술가가 모여 살며 활발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창작공간이자 거주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학동 예술마을의 공방,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카페, 화실, 서점 등은 대부분 생활공간을 겸하고 있으며, 아기자기하고 이색적인 공간이 인상적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서학3길 85-3 (서서학동)

가는 방법 전주천·서학예술마을 정류장 ▸ 도보1분

뚜벅이투어

공간·기억에 취하다

과거 전주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였던 구도심 일대의 서점, 다방, 건물, 상징물, 만남의 장소 등 시민 다수의 기억·추억이 담긴 장소 중심

한성여관 → 전주1924(일제강점기 창고) → 전주 최초 고아원 터 → 이시계점 → 미원탑터 → 홍지서림 → 한가네서점 → 삼양다방 → 선각사

한국전통
문화전당
전주동부시장
한성여관
KT프라자
한가네서점
삼양다방
홍지서림
선각사
미원탑터
이시계점
전라감영
경기전
전주완산
경찰서
풍남문

한성여관

한성여관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으로, 1949년 개업한 후 전국의 소리꾼들이 즐겨 찾으며 여성창극단(임춘앵, 박귀희, 김진진 등)의 숙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1979년 재건축 하여 60여 개의 객실을 갖춘 대규모의 여관이 되었다. 2006년에 호텔로 전환하고 한지 인테리어와 갤러리화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후 2008년 한성관광호텔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성여관의 초대 사업주 이귀언의 남편은 유명한 소리꾼이었고, 전국의 소리꾼들이 찾아와 머무르게 되면서 여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예술을 즐기던 전주 시민들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던 시절, 한성여관은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추억을 만드는 장소였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인사들이 머물고 간 자취도 있어서 주인의 자랑거리가 된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43-3(고사동 199)

가는 방법　구 외환은행 정류장 ▸ 도보3분

전주1924 (일제강점기 창고)

전주1924 건물은 1924년 일제강점기에 곡물창고 용도로 건축된 곳이다. 당시 네 개 동으로 되어 있었지만 세 개 동은 철거되고 지금의 건물만 남아있다. 건물의 특징은 천장이 높지만 기둥이 없으며, 곡물창고로써 기능을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건축되었다. 건물 한 면에는 건립 당시의 흙벽 일부가 남아 있으며, 높은 곳에 뚫린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탁구장, 주류창고, 간판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건물의 주요한 부분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하여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49(다가동4가 83-4)
가는 방법　서문 정류장 ▸ 도보5분, 북문 정류장 ▸ 도보10분

전주 최초 고아원 터

전주 최초 고아원은 1928년 서문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방애인 선생과 전주YMCA는 점점 많아지는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하였다. 1932년 서문교회 근처 한옥을 구입하여 고아원을 열었다. 당시 전주기전여학교 교사였던 방애인 선생은 기독사회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헌신하였다. 1934년 배은희 목사가 쓴 "조선 성자 방애인 소전"이 출간되면서 그녀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한옥 고아원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고아원을 설립한 방애인 선생과 전주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1길 14-15 (다가동3가) 주변

가는 방법　전주서문교회 ▸ 도보1분

이시계점

1940년대에 개업한 이시계점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귀금속점이다. 이시계점에서 취급한 보석, 시계 등 귀금속은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이시계점은 고가품을 취급하면서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전주 시민들은 이곳에서 결혼 예물, 돌 반지 등을 구입했다. 이시계점은 바둑의 명인 이창호 9단의 생가로도 유명하다. 1940년 이창호의 조부가 시계점을 개업한 후 부친이 대를 이어 운영하였다. 현재는 인근 지역에서 '으뜸공방'을 운영하고 있던 이평원이 이시계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시계점의 명성을 잇고자 상호를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이시계점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택이네 금은방'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25 (중앙동3가)

가는 방법　충경로 객사 정류장 ▸ 도보1분

미원탑 터

미원탑은 1968년 전주 완산구 팔달로 시청 네거리에 세워진 탑으로,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했다. 번화가 한복판에 세워진 이 탑은 조미료인 미원을 선전하는 홍보용이었으나, 밤에 켜지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은 도시의 중심을 알리는 상징물 이기도 했다. 1979년 6월 도시 정비과정에서 철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진 미원탑을 지형지물로 사용한다. 기억의 장소인 미원탑 터의 이야기가 나오면, 전주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추억을 나눈다. 현재는 팔달로 기업은행 사거리에 도로 원표와 전주미래유산 명패가 미원탑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경원동1가 106) 일대
가는 방법　팔달로 예술회관 정류장 앞

홍지서림

홍지서림은 전주 서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곳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점으로, 천병로가 1963년 동문사거리에서 개업하면서 전주 문화계의 자존심을 유지해 왔다. 1990년대 말 이후 온라인 서점의 등장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자 기존 출판업과 서점은 더욱 약세를 면치 못했다. 홍지서림의 위기설이 돌자 소설가 양귀자는 서점의 인수를 자원하였다. 양귀자는 전주가 고향으로, 어린 시절 홍지서림에서 책을 접하며 소설가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현재는 그의 동생인 양계영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홍지서림은 단순한 서점의 기능을 넘어, 시대의 고뇌를 논하는 강좌와 강연을 개최하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6 (경원동1가 15-1)
가는 방법　팔달로 예술회관 정류장 ▸ 도보2분

한가네서점

동문사거리 인근은 한때 책방골목이라 불렸다. 과거 헌책방들이 모여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가네서점과 홍지서림만이 예전에 이곳이 책방골목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듯 외롭게 남아있다. 쓰던 책을 팔아 새 책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으로 사용했다. 청년 시절의 추억을 가진 시민들은 아직도 헌책방 앞에 서면 감회가 새롭다. 그런가 하면, 폐휴지 속에서 발견된 고서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국학 연구자들은 한때 정기적으로 헌책방 순회를 하기도 했다. 한가네서점 사업주 최웅제는 지금까지 서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라는 책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이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었지 않았나 싶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가슴 저미는 안타까운 사랑에 며칠 밤을 마음속으로 울고 울었던 끝에 책이라는 위대한 친구를 알게 되었고 끝내는 서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업주는 헌책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생의 친구를 소개해주며 지금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2 (경원동1가 12-3)

가는 방법　충경로KT전주지사 정류장 ▸ 도보2분

삼양다방

1952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전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다방이다. 삼양다방에는 음악, 미술, 영화에 종사하는 예술인, 시와 소설 등을 쓰는 문학인, 그리고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사랑방이었다. 1970년대 이후 다방에서는 DJ가 틀어주는 음악이 흐르는데, 젊은이들의 모임과 데이트 장소로 주목 받았다. 다방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많은 곳이 폐업했으나, 삼양다방은 꾸준히 애용하는 고객들 덕분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삼양다방은 2014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옛날에 사용하던 소품을 보존하여 내부를 장식하였다. 시민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삼양다방의 역사와 공간의 활용이 알려지며 재생의 성공사례로 손꼽혔다. 삼양다방은 지역 문화의 사랑방이자 전주 시민들의 추억과 감성이 깃든 장소로 남아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94 (경원동2가 7-9)

가는 방법　충경로KT전주지사 ▸ 도보2분

선각사

선각사 건물은 1929년 일본인 건축업자 아베에 의해 세워져 조선금융조합연합회로 사용되었다. 1933년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북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농협·축협으로 사용하였다. 2001년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말사인 선각사가 이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외관을 정비한 것 외에는 건축 당시 내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을 다루었던 시설인 만큼 금고를 튼튼하게 지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근대식 난방시설도 선각사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7 (경원동2가 32)

가는 방법　팔달로 예술회관 정류장 ▸ 도보3분

전주미래유산

JEONJU FUTURE HERITAGE

뚜벅이투어

올곧음의 길을 떠나다

바쁜 도시인들에게 전주정신의 한 축인
'올곧음의 길'을 통해서 사색과 치유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장소 중심

곤지산 초록바위 → 보광재 옛길 → 한지 제조 기술 → 충경사

곤지산
초록바위
완산도서관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
대학교
대산아파트
충경사
전주남
초등학교
효성
흑석마을
아파트
우정아파트
옛 한지제조
기술이 전해졌던 곳
보광재 옛길

곤지산 초록바위

곤지산 초록바위는 산세가 '갈마음수격(渴馬飮水格, 말이 풀밭을 찾는다)'이라 하여 초록바위라 불린다. 본래 초록바위는 지금보다 더 가파르고 산세가 험했다. 전주천 제방공사와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초록바위는 조선시대 사형수를 효수하던 처형장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김개남 장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병인박해(1866년) 시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탄압을 시작하게 되자 이곳에서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2006년에 천주교 전주교구는 순교정신을 기리고자 전주천변 도로 옆에 순교 기념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하였다. 초록바위가 처형장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달맞이 장소였다고 전해진다. 전주 10경 중 하나이기도 한 이곳은 예부터 곤지망월(坤止望月)이라 하여 정월대보름날 곤지산에 올라 달맞이 행사를 하며 소원을 빌었던 장소였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13일대

가는 방법 서학동예술마을 정류장 ▸ 도보2분

보광재 옛길

보광재의 명칭은 현재 사라진 보광사라는 절에서 유래하였다. 과거 이곳을 '귀한 손님이 오는 길'이라는 뜻으로 화객도(華客道)라 부르기도 했다. 또한 풍수지리학적으로 보광재 고갯마루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호랑이나 한 마리의 곰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인 복호항지맥 (伏虎項地脈)으로 복항재라고도 불리었다. 보광재 옛길은 전주 서학동 흑석골과 완주 구이면을 연결하는 고갯길이자, 구이 평촌리를 거쳐 임실까지 가는 주요 교통로이다. 구이와 임실주민들의 통학로였으며, 전주 남부시장에 농산물을 팔거나 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로 많은 시민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옛길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흑석골 ~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가는 방법 흑석골 정류장 ▸ 도보30분

한지 제조 기술

전주는 한지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며, 한지 제작의 역사는 5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양질의 한지를 만들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로 내보냈다. 1960년대 서서학동 흑석골에서는 한지 제작이 성행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한지 공장들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으로 이주하여 전통 한지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들이 팔복동으로 이전해 전주의 한지 생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처가 급격히 감소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전주 한지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 전주천년한지관

가는 방법 흑석골 정류장 ▸ 도보 3분

충경사

충경사는 의병장이었던 이정란(1529~1600)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남고산성(사적)을 오르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정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이 호남으로 밀어닥치자 64세의 나이로 의병을 모아 소양과 진안 쪽에서 공격해 오는 적군을 무찔렀다. 나라에서는 이정란의 용기와 충정을 추모하기 위해 그에게 충경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현재 전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인 '충경로'와 육군 제35사단 '충경부대'의 명칭은 이정란의 호에서 유래한 것이다.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1길 31 (동서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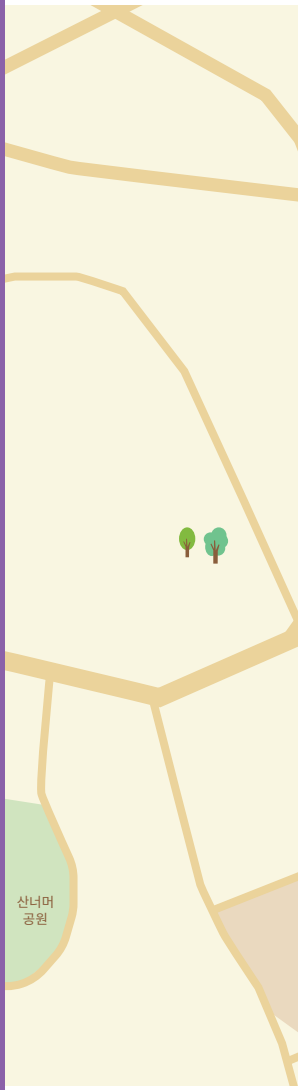
가는 방법　남고사 정류장 ▸ 도보1분

뚜벅이투어

일상의 추억 속으로

생활 속 전주미래유산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중심

광명대장간 → 성수미점 → 통일이용원



전주신흥
고등학교
예수대학교
전주신흥
중학교
전주예수병원
동신2차
아파트
통일이용원
성수미점
중화산
신일아파트
엠마오
사랑병원
중화산현대
2차아파트
전주오페라
하우스아파트
광명대장간
용머리고개
전주화산
초등학교
완산동
주민센터

광명대장간

과거 전주에는 많은 수의 대장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용머리고개 일대에 3개의 대장간이 남아 있다. 광명대장간은 창업주가 1956년에 문을 열어 시장 근처에서 운영하다 1980년대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지금은 창업주의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대장간에서는 소형 도구와 농기구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된 여러 도구들도 함께 판매한다. 각종 도구를 손과 불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데, 생동감 넘치는 모습은 행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도심 속에 자리한 이곳은 사라져 가는 대장간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65 (서완산동 126-1)
가는 방법　완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 도보5분

성수미점

성수미점은 중화산동 예수병원 인근에 위치한 싸전이다. 현재는 마트에서 쌀이나 잡곡 같은 양곡을 사다 먹지만 과거에는 싸전에서 각종 곡물을 판매했다. 성수미점의 주인인 이강덕의 고향이 임실군 성수면인데서 붙여진 상점 이름이다. 이강덕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전주로 이사를 했고, 현재의 위치에서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쌀과 잡곡을 배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과거 동네마다 있던 싸전이 마트에 밀려 사라지고 있지만 성수미점은 변함없이 동네 길목의 한 모퉁이를 지키고 있다.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5-14 (중화산동1가)

가는 방법 준한방병원 정류장 ▸ 도보2분

통일이용원

통일이용원은 중화산동 예수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문을 열었다. 처음 문을 연 곳은 현재의 이용원 위치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당시 이용원에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분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최경민 이발사가 처음 이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다. 이후 1974년 사업주는 본점과 분점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로 '통일이용원'이라고 간판을 올렸다. 최경민 이발사는 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통일이용원은 처음 문을 연 1946년부터 지금까지 76년의 시간동안 주민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통일이용원에 자리하고 있는 수동식 이용의자,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세면대, 가위와 면도기 등은 세월을 비켜 간 듯 옛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최경민 이발사는 가위 하나만을 사용해 손님의 머리카락을 말끔하게 자르며, 오래된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이발사와 손님의 모습도 우리가 남겨야 할 미래유산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산너머3길 6-13 (중화산동1가 320-1)
가는 방법　준 한방병원 정류장 ▸ 도보3분

전주미래유산

JEONJU FUTURE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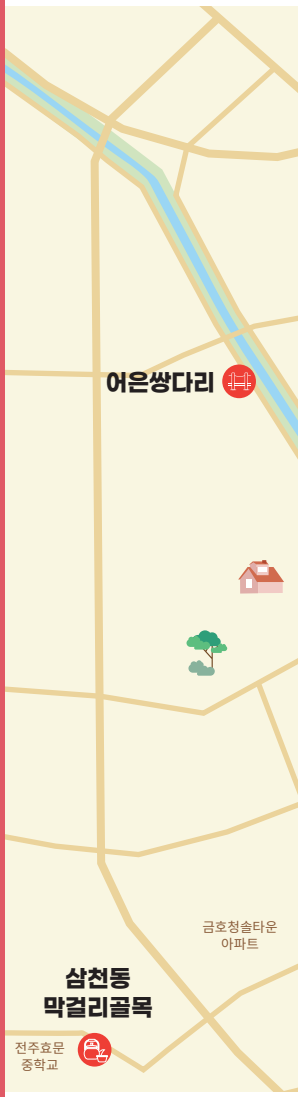
뚜벅이투어

저잣거리에서 의인을 만나다

시장과 상점거리에서 이거두리를 비롯
선행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중심

어은쌍다리 → 매곡교와 싸전다리 뚝방길, 이거두리 이야기 → 남부시장 → 깨배기주단 → 모래내 전통시장 → 약령시거리 → 송용진한의원 → 삼천동 막걸리골목

(자동차 이동)



모래내 전통시장
전주동
초등학교
덕진구청
전주
고등학교
전주시청
한국전통
문화전당
송용진한의원
전주기전대학
경기전
약령시거리
깨배기주단
남부시장
전주향교
매곡교와 싸전다리 뚝방길,
이거두리 이야기
전주교육
대학교

어은쌍다리

어은골(진북동 소재)은 물고기가 숨어있는 골짜기란 뜻으로 전주천 구간 중에서 여러 종의 물고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던 곳이다. 어은쌍다리는 1962년 전주천 위에 보행자용 다리로 세워졌으며, 전주시내와 어은골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원래는 외다리였으나, 어은골 인구가 늘고 차량이 보급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다리 옆에 추가로 다리를 건설하였고, 현재의 '쌍다리'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5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주요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길 (진북동)

가는 방법　어은골 정류장 ▸ 도보5분

매곡교와 싸전다리 뚝방길, 이거두리 이야기

매곡교와 싸전다리는 전주천을 가로질러 완산동과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매곡교와 싸전다리 사이 뚝방길에는 노점상들이 옹기종기 저마다의 좌판을 벌려놓고 손님들을 부른다. 새벽부터 농사꾼들이 자신이 기른 채소며, 곡식을 짊어지고 와서 팔았고, 나무꾼들도 땔감나무를 한 짐 등에 지고 와서 팔던 곳으로 유명하다. 가난한 나무꾼들을 남몰래 도왔던 이거두리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다. 이거두리(본명 이보한, 1872~1931)는 다리 주변으로 모인 빈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며 평생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양반 출신인 그가 걸인을 활용해 독립운동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거두리가 세상을 뜨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인들, 나무꾼들을 비롯해서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끝이 없었다고 한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천동로(다가동) 매곡교와 싸전다리 일원
가는 방법 한옥마을 입구 ▸ 도보8분

남부시장

전주성 남문 밖에 있던 남문장(남밖장)의 역사를 이어온 시장으로, 호남의 풍부한 물산이 모여들어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였다. 남부시장에서는 미곡, 지역 특산물, 종이, 식품, 공산품 등 생활필수품이 거래되어 왔다. 국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전주음식의 재료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천교를 중심으로 한 새벽장이 유명하고, 청년몰과 야시장이 개설되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몰은 이전 새마을 시장이었던 남부시장 2층을 청년들의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공간이다. 젊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아이템으로 문을 열게 되었으며, 청년몰 입구에 있는 '적당히 벌고 아주 잘살자'는 표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곳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19-3 (전동)

가는 방법 남부시장 정류장 ▸ 도보1분

깨배기주단

남부시장 안 주단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는 시장의 꽃이기도 하다. 오래된 가게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깨배기주단은 전주의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유명한 곳이다. 남부시장에서 1948년 문을 연 깨배기주단은 지금까지 3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오래된 가게에서 어머니, 며느리, 손자로 이어지는 가업전승을 실천하고 있다. 3대가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좋은 평을 받고있다. 몇 십 년 된 단골들이 아직도 깨배기주단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유는 좋은 옷감을 쓰고, 바느질 솜씨가 좋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통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한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5 (전동3가)

가는 방법　풍남문 정류장 ▸ 도보2분

모래내 전통시장

모래내 전통시장은 1970년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재배한 채소, 과일 등을 주변 주택가에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주민들의 수요와 지리적 여건이 만나 형성된 시장으로,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특히 전주 인근 농작지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이 많이 거래된다.

최근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시장 구역을 정비하고 축제를 기획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매년 '치맥&가맥 축제'를 개최하여 전주 전통시장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모래내 전통시장에서 튀긴 고소한 치킨과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수제 맥주를 그 자리에서 함께 맛볼 수 있어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4길 8-8 (인후동2가 203-10)

가는 방법　모래내 정류장 ▸ 도보3분

1923년 약령시 복설에 힘을 다했던 박계조를 기념하는 비이다.

약령시거리

전주는 조선의 3대(전주, 대구, 원주) 약령시 중 하나로 꼽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후기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1930년대 전국에서 가장 큰 장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약재상과 구매자들로 넘쳐났고, 거래 규모 또한 커서 전주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약과 관련된 도구나 기술들이 발달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주 약령시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원로 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약령시 복원에 힘을 쏟았다. 1999년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주 경기전과 태조로 일대에서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약시장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전주약령시 기념비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약재상과 한약방을 통해 과거의 약령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완산교 주변

가는 방법 완산경찰서 정류장 ▸ 도보2분

송용진한의원

전주에는 한때 약령시가 발달했던 만큼 약을 잘 짓거나 침을 잘 놓는 한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서양 의학이 보급되면서 한의원이 점차 사라져 갔다. 송용진한의원은 개원 초기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오래된 단골들이 찾았다. 한의원 진료실 입구 위쪽에는 '생명을 구제하고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린다'는 뜻의 '제생활인(濟生活人)'이란 편액이 걸려있다. 송용진한의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갖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글귀이다. 1969년 개원한 송용진한의원은 그 자리에서 반세기 동안 운영되었으나, 2020년 폐업하여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8-25 (중앙동1가)

가는 방법 서문 정류장 ▸ 도보1분

삼천동 막걸리골목

어느 곳이나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술집이나 대포집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전주의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조금은 특별나다. 막걸리 한 주전자만 시키면 삼계탕, 전, 찌개, 튀김, 삼합 등 푸짐한 안주로 한상 가득 차려진다. 막걸리를 비우고, 한 주전자를 더 주문하면 또다시 산해진미로 한 상 가득 차려진다.

맛의 고장 전주답게 안주의 맛 또한 일품이다. 다채로운 안주와 전주 막걸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럿이 가는 걸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가족, 친구, 지인 등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정겨운 공간이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로 일대 (삼천2동 막걸리 골목)

가는 방법 삼천동 삼익아파트 정류장 ▸ 도보5분

네바퀴투어

도심 속 마을 공동체를 찾아서

전주 도심 안에서 마을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거북바위 → 노송동 천사 → 전주역 터 → 문화촌 공공건축물 → 비사벌 초사(신석정 가옥) → 행치마을 → 장재마을

전주역
장재마을
유일여자
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
고등학교
전주여자
고등학교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전주
모래내시장
행치마을
전주신일
중학교
전주중앙
여자고등학교
전주아중
초등학교
문화촌
공공건축물
전주역 터
전주
고등학교
노송동 천사
아중마을
부영3차아파트
전주시청
아중체련공원
아중호수
전주풍남
초등학교
비사벌 초사
(신석정 가옥)
한국전통
문화전당

거북바위

전주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후백제의 도읍지로, 후백제왕 견훤은 전주를 도읍지로 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사신(방위신) 체계를 구상했다. 청룡(완산칠봉), 백호(기린봉), 주작(승암산)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했고, 사신체계를 완성하고자 인위적으로 거북바위를 조성했다. 거북바위는 길이 13m, 총길이 17m, 폭 5.3m, 두께 2m, 무게 2톤에 이르며, 우리나라 최대크기를 자랑한다. 거북바위는 현무를 나타내며, 지역 주민들의 장수와 다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대상물이다. 현재 거북바위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1길 16-6 (금암동, 천년이지움아파트)
가는 방법　금암시립도서관 정류장 ▸ 도보2분

노송동 천사

노송동에는 '얼굴없는 천사'가 살고 있다. 그는 2000년부터 매년 성탄절마다 1억 원 안팎의 성금과 편지가 담긴 상자를 기탁해 노송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10월 '얼굴없는 천사'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고, 스스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천사의 길을 조성하여 미담의 주인공에게 보내는 주민들의 편지를 담아두었다. 또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 비석을 세우고 작은 공간의 쉼터 등을 마련해 놓았다. 노송동 천사의 고귀한 선행과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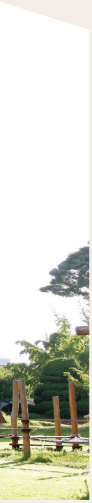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일대 (중노송동 225)

가는 방법　천사마을 정류장 ▸ 도보7분

전주역 터 (전주시청)

1927년 10월 1일, 이리-전주 간 '경전북부선'이 개통되며 당시 상생정(현 태평동)에 있던 전주역이 노송동(현재 전주시청 자리)으로 이전하였다. 전주역 터는 1929년부터 1981년까지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의 주요 역인 전주역이 있던 자리이다. 당시 전주역은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다. 기차를 타고 내리던 시민들이 이용하던 역 광장은 다목적 장소였다.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되었고, 시위나 집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던 곳이었다. 현재는 전주시청사가 자리하면서 옛날 기차역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지만, 북적거리던 넓은 역 광장의 기억이 시청 광장과 겹쳐지면서 세월의 흐름을 확인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가는 방법　전주시청 정류장 ▸ 도보3분



문화촌 공공건축물

노송동에 위치한 문화촌 공공건축물은 1970년대 당시 대통령 영부인의 방문에 맞춰 신축한 건물이다. 이후 40년 이상 고아원(보육원)·유치원·경로당·스포츠센터 등 마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다. '문화촌'이란 명칭은 지역 언론사의 기자, 학계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교편을 잡은 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고 건물 정면에 아치 모양을 넣어 건물의 미관을 살렸다. 현재 건물은 마을의 무더위쉼터, 전주시 노송동 해피하우스센터, 대한시조협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문화3길 14-14 (중노송동)
가는 방법　천사마을 정류장 ▸ 도보2분

비사벌초사 (신석정 가옥)

신석정 시인은 1954년 전주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비사벌초사'라 이름 붙인 이곳에서 1961년부터 197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주했다. 지금도 시인이 살았던 당시의 가옥구조와 정원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신석정 시인은 평소 정원 가꾸기가 취미였으며, 정원에서 사색을 즐겨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정원에서 자연과 어울리며 시적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 나무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비사벌초사는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위　　치 전주시 완산구 관선4길 42-9 (남노송동)

가는 방법 전주제일고 입구 정류장 ▸ 도보2분

행치마을

행치마을은 전주시 산정동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온돌의 주 재료인 구들을 채취하고 가공하였다. 현재도 구들을 만들었던 흔적이 마을 여러 곳에 남아있어 흥미롭다. 행치마을은 90가구 400여 명이 거주하는 제법 큰 규모의 마을이었으나, 1981년 전라선 철도가 마을 앞을 지나게 되면서 현재는 28가구 122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변화되었다. 구들을 켜켜이 쌓아 만든 오래된 우물과 담장을 바라보면 당시 분주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산정동)

가는 방법　아중역·한옥레일바이크 정류장 ▸ 도보2분

장재마을

장재마을은 덕진구 우아동3가에 위치한 마을로, 과거 종이와 대나무로 우산을 제작하던 마을이었다. 현재의 우산 형태와 달리 대나무에 유지(기름먹인 종이)를 붙여 우산을 만들었다. 장재마을에서 생산된 우산은 가내수공업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인근 지역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우산장 윤규상 보유자도 장재마을에서 우산 제작 기술을 배웠다.
현재 마을에서는 우산을 제작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그 역사와 경험은 마을 주민과 전주 시민들의 기억 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장재길 55-3 (우아동3가 248)
가는 방법　전주역 정류장 ▸ 도보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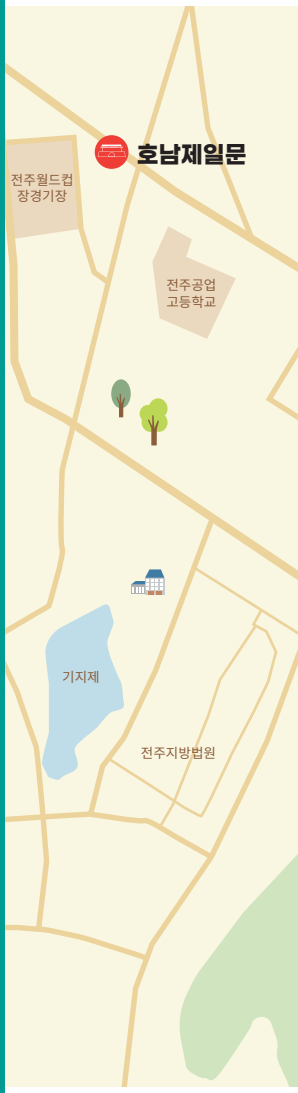
전주미래유산

JEONJU FUTURE HERITAGE

네바퀴투어

전주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전주의 근현대 시기에 세워진
주요 공공시설물 둘러보기



호남제일문 → 구 검사장 관사 → 전주 동물원 → 전주종합경기장 터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
동물원
구 검사장 관사
전주
덕진공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덕진
중학교
전주종합경기장 터
그랜드
힐스턴호텔
전주시외
버스터미널
덕진구청

호남제일문

호남제일문은 전주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1977년에 전라감영의 본영지인 전주를 상징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991년 전국체전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철거했다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1994년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립하였다. 조선시대 관문의 모습을 재현하여 호남제일문을 건축하였다. 현판에 쓰여진 '湖南第一門(호남제일문)'은 강암 송성용의 글씨로, 전주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호남제일문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6 (여의동 12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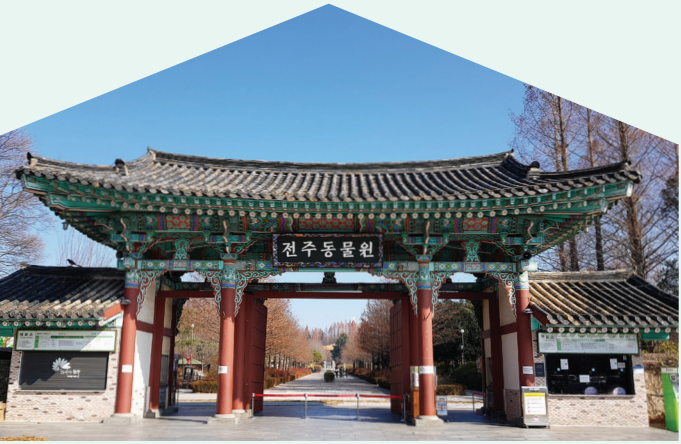
가는 방법 새전주 요양병원 정류장 ▸ 도보5분

구 검사장 관사

구 검사장 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의 관사로 사용된 건물이다. 관사가 위치해 있는 호반촌은 1980년대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여러 기관장의 관사와 고급 주택이 많이 들어선 부촌이었다. 주변을 둘러싼 높은 담장은 과거 이곳이 고급 주택가임을 짐작케 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초기 건축물의 형태와 정원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관사는 2001년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무궁화한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36 (덕진동2가 167-47)

가는 방법　도립국악원 정류장 ▸ 도보3분, 덕진공원 ▸ 도보7분



전주동물원

전주동물원은 1978년에 개장하여 지방 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되었다. 도심에 휴식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나와 가족 간의 시간을 즐겼다.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들에게 동물 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이며, 대표적인 학교 소풍 장소로 손꼽힌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린 시절 소풍을 왔던 장소로 회자하며, 동물원에 대한 많은 추억을 이야기한다.

매년 봄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 잦아진다. 2015년부터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 동물원 형태로 새단장하여 전주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73-48)

가는 방법 전주동물원 정류장 ▸ 도보2분

전주종합경기장 터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되었다. 이곳은 전주 시민을 비롯한 전 도민이 모금에 앞장서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든 현장이기도 하다. 전주의 넉넉한 인심에 참가자들이 매료되어 수많은 미담이 만들어졌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차례(44회, 61회, 72회, 84회)의 전국체전과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도내의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해오면서 시민을 위한 운동장으로 애착이 강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또한 백제대로와 기린대로가 마주하는 전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랜드마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의 공동체 정신이 발현된 곳이자 사회교류의 장이었으며, 시민사회가 성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곳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이다.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덕진동1가 1220-1)

종합경기장 정류장 ▸ 도보7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74년에 지어졌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국의 주요 도시 및 지역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반세기 동안 전주를 찾는 손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위해 시민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무심하게 지나는 곳일지라도 가장 먼저 전주를 만나는 곳이며, 전주를 떠날 때도 거쳐 가야 한다. 전라북도 내 소도시를 연결하면서 오랜 시간 시민과 관광객의 추억과 역사를 지닌 장소이다. 타 도시에서는 낡아버린 터미널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지속적인 보수와 리모델링을 거쳐 과거의 모습도 함께 간직하며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금암동)

가는 방법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 도보1분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JEONJU FUTURE HERITAGE GUIDEBOOK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 전주미래유산 42선

발행일	2022. 12
집필자	함한희, 박순철, 오세미나, 조나영
발행처	전주시, (사)무형문화연구원
기 획	(사)무형문화연구원,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제작/인쇄	디자인스토리
ISBN	979-11-981299-0-1(03090)

•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4104)
• 전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임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JEONJU FUTURE HERITAGE GUIDEBOOK

전주미래유산 42선

전주의 추억을 찾아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CICS 무형문화연구원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Intangible Heritage and Information